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의 영성이 민감한 사회복지실천에 관한 고찰

Edward R. Canda 교수 / 캔사스대학교 사회복지대학 학과장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영성에 민감한 사회복지실천에 관한 제 생각을 물어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2014년 11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CS 강점 및 영성기반 노인통합사례관리사업 세미나에서 구성원들을 만나 발표 시간을 가졌었는데, 매우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연락이 되어 기쁩니다.

저는 일곱 가지 질문들과 그에 대한 더 구체적인 질문들, 그리고 임채원 수석 연구원(서울대학교 국가리더십센터)의 연구자료 “3천년기의 가톨릭사회복지와 영성 고찰”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자료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요청받았습니다.

이 글에서 저는 그 연구자료의 내용을 통해 얻게 된 통찰력을 여러분께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하신 부분들은 모두 답해 드리려고 하겠지만, 공간이 너무나도 제한적이라 조금 어렵긴 합니다. 각 질문에 상세히 대답하기 위해서는 하루나 이틀에 걸쳐 워크숍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에 6월쯤 한국을 방문하게 될 것 같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때 만나서 더욱 자세히 이야기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 고찰

“삼천년기의 가톨릭사회복지와 영성에 대한 고찰” 연구자료는 현재 글로벌 상황과 관련된 시급한 사회복지문제들, 소득 불평등, 고령화, 기술의 빠른 변화, SNS, 기후 변화, 기타 웰빙에 대한 위험 등 대한민국의 인구 및 사회적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 과제들에 직면하여 사회 제도 및 사회 복지 시스템, 가톨릭 사회 윤리에 입각한 복지사업, 복지에 관한 다양한 종단의 종교적 접근, 종교에 기반을 두지 않는 사회 개발의 관점에서 더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미국 및 전 세계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들 중에는 학자 및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평화와 정의를 공유하고자 하는 다양한 종교적 및 비종교적 접근 방법을 모두 아우르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의 가치를 돌아보고, 그렇게 함에 있어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가지고 있는 가톨릭 사회 윤리 정신을 따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존엄성을 완전히 지지하고, 이 행성의 생태계와 인간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넘어야 할 도전 과제들에 있어 인간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톨릭 신학의 입장과 관점을 잘 이해하고 있거나, 그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카리타스의 미덕을 지지하는 사회복지학과 교수일 뿐입니다. 또한 제가 드리는 제안들이 실제로 실현 가능한지, 한국의 문화적인 맥락에서 구현할 수 있는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의 사명을 구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냉철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미국 방문 중 미국 의회에서 하신 연설에서 교황님은 네 명의 사람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마틴 루터 킹, 도로시 데이 (가톨릭 노동자 운동의 창시자), 토마스 머튼 (가톨릭 수사)인데, 이 분들의 이상은 제 가치관을 형성해 주기도 하였지요. 이 들 중 오직 두 명이 가톨릭 신자였지만, 네 분 모두 영적 감화를 받아 평화와 정의, 사회적 행동주의에 관한 의지를 공유하셨습니다. 교황님은 토마스 머튼 (가톨릭 수사)에 대해 “머튼은 기도하는 사람들 중 으뜸이었으며, 그 당시 사람들이 확신했던 것들에 대해 도전을 던진 사상가였고,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머튼은 명상 기도와 사회적 행동주의, 종교간 학습, 특히 그리스도교와 불교 간의 학습으로 유명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제가 앞으로 드릴 제안들의 틀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머튼의 영적 접근 방식은 모두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고, 협력하는 방식을 배워야 하는 다양한 종교적, 비종교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속해 있는 한국 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세계관은 유교와 도교, 불교, 샤머니즘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모두가 공식적 및 비공식적 사회복지와 상호지원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오늘날 일부 불교 종파들 (조계종과 같은)과 원불교는 적극적으로 사회복지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의 많은 종파들도 한국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는 이슬람교를 포함한 다양한 종교적 관점과, 비종교적 관점을 포함한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관점들을 통합하여 복지를 적극 증진시키고 고통을 없애는 데 협력을 이룬다면, 아마도 사회복지활동의 영향력은 더욱 큰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의 가톨릭사회복지와 영성의 고찰을 다루는 이 연구자료는 카리타스를 가톨릭 신자와 특별히 가톨릭 사회복지 서비스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핵심이 되는 신학적 덕목이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연구자료에서 말을 바꾸어 표현했는데) 이 덕목은 가톨릭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가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사회복지사업에 종교를 도입시키는 것에 관한 법적 규제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그러한 가톨릭 덕목에 대한 의지를 빚낼 수 있도록 현대 한국 사회에 맞추어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해석을 하려면 카리타스가 가톨릭 신앙을 지키면서 클라이언트 및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신중하며 진심이 담긴 고찰이 있어야 합니다. 유럽 카리타스 신학의 선도적인 제창자인 하인리크 폼페이 교수는, “자선의 소명은 기본적으로 복음화이다. 자선은 하느님의 진정한 사랑에, 특히 이타주의적인 방식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동참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다른 목표를 좇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헌신적인 사람들에게는 “다른 어떠한 목적도 추구하는 않는” (개종 포함) 이 문구가 가장 도전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카리타스에 대한 이런 관점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적이거나 민족주의적인 목표들 없이 개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여 오로지 사랑의 정신으로만 봉사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곧 그리스도교적 발달심리학자 제임스 파울러가 ‘신앙의 보편화’라고 부르는 성숙도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영적 발달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보편화는 사람들의 다양한 신앙과 세계관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동시에 자신의 신앙과 세계관에 충실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영적 발달에 대한 관찰은 가톨릭사회복지와 영성에 관한 고찰을 다루는 연구자료에 언급된 대로, 가톨릭 사회복지사들의 Q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를 관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은 탐색적 연구이지만, 연구에 참여한 사회복지사들 중 많은 이들이 이기주의에 기반한 용기와 자존심 및 분노로 특징지을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관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고관리자와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사랑과 이성에 바탕을 두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봤던 연구의 요약본에서는 그러한 사람들 중 영적 민감성을 띤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다양한 클라이언트/고객들에게 응대를 하기 위해 마음의 양성을 위한 (사회복지, 사목 상담, 심리 등) 훈련을 받거나, 자신의 영성을 표현하기 위한 준비 또는 교육적 지원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사회복지 서비스 환경에서 일하는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영성”과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을 많이 받지 않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실 영적 다양성과 영적 민감성 실천이라는 주제는 한국에서는 다소 새로운 것입니다. 사회복지학문 교육커리큘럼에 일반적으로 포함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전문적 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사들이 많을수록 이들이 영적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논문에 나타난 저의 주장을 통해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개선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영성과 사회복지 학회”의 노력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카리타스라는 덕목에 뿌리를 두고 다양성 문제를 다루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 원칙

오늘날 점점 더 다각화되는 한국 사회라는 맥락에서 카리타스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일반적 원칙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의 법이 어떠한지 세세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저의 제안들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톨릭의 지원 시스템 (교구 사목회, 성사, 평신도 및 사제의 선교 활동, 전례, 가톨릭 신자들 간의 상호 사회적 지원)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요청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윤리적 사회복지실천은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을 서비스개입계획에 반영하여 넣는 것입니다. 이는 클라이언트가 불교 신자나 세속, 또는 다른 믿음이나 활동, 지원 시스템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을 더 선호한다고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라이언트의 목표, 편안함을 느끼는 수준, 문화적 또는 영적 성향은 언제나 우선순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는 즉 클라이언트가 그 어떠한 종교적 접근이나 영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할 경우, 그러한 부분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전문적 사회복지의 기본 원칙이며, 영적 민감성을 띤 사회복지의 관점과 강점관점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톨릭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복지 기관이 마주하는 실질적인 도전 과제 중 하나는 비가톨릭 클라이언트가 지원을 요청했을 때 보일 수 있는 다양한 반응들을 모두 떠올리는 것입니다. 가톨릭 상징 (가령 십자가)과 가톨릭 사회복지 기관이라는 환경 속에 녹아 있는 가톨릭적 요소들에 클라이언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클라이언트가 그런 상징들에서 편안함과 친숙함을 느낀다면 관계성과 신뢰가 한층 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클라이언트가 냉담자이거나 가톨릭 신자가 아니면, 이러한 것들에 노출되었을 때 오히려 때때로 불편함과 긴장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톨릭적 요소가 가톨릭 환경 안에 녹아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일관성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가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환영받고 지지를 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사회복지윤리 (최소한 미국에서 이해되고 있는 바로는)에서는 클라이언트가 기도를 하는지 또는 다른 종교 활동을 하는지에 따라 복지 서비스 제공의 유무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클라이언트가 기관으로부터 자원을 받아야 하거나, 스트레스와 위기 인식으로 많이 나약해져 있는 등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그러한 상황 때문에 종교적인 관례에 동참을 해야 한다면 이들은 압박을 느끼고, 그것을 따르지 않았을 때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전문사회복지사는 절대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을 전문 사회복지실천에 적용하기 위해 저는 공동 저서 ‘사회 복지 실천에서의 영적 다양성’을 통해 영적 민감성을 띤 지식과 가치, 기술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판은 한국어로 번역되어 성균관대학교 출판사에서 출판하였고, 박승희 교수가 주요 번역가로 작업

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글에 쓸 수 있는 것보다 그 책에 자세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또한 영적 다양성과 사회복지 이니셔티브를 위해 만들어 놓은 제 홈페이지에서 여러분에게 유용할 수도 있는 자료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영적 사정의 예를 들어 영적 민감성을 띤 사회복지실천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 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사회 복지에 대한 영적 사정

클라이언트의 목표와 관심사, 편안함, 준비, 영성의 중요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타 사회복지 사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정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정은 한 쪽으로 치우치거나 미리 예정된 결과를 선택하도록 클라이언트를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사정 절차는 클라이언트가 이해하고 지지하는 방향을 따라 새로운 가능성들을 여는 대화로 클라이언트를 초대해야 합니다(클라이언트가 스스로나 다른 이들에게 위험을 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심리사회적인 평가만 여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보호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사정을 통해 기존에 제시한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클라이언트의 관심사에 대해 탐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중 하나는 영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사정하는 것입니다. 사정 방법을 잘 보여주는 PDF파일을 따로 첨부하여 보내드립니다. 이 사정 방식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들을 위해 만들어졌습시다만 다른 환경에 처한 사람들 (성인이어야 함)을 사정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PDF파일은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한국어로 번역해서 사용하세요.

이 PDF파일은 영성적 강점과 클라이언트/고객이 가진 자원이 어떻게 그 사람의 정신적 건강 회복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관한 명확하고, 도덕적이며, 실천적인 지침을 제시해 주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그 목표는 다양한 삶의 영역을 전반적으로 사정하는 방식을 취해 영성이 정신 건강 회복에 얼마나 중요하고, 복지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획안에 자원과 강점을 연관시켜 넣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비록 PDF파일은 정신 건강을 위해 제작되었지만, 그 지침은 다양한 사회복지환경에 맞춰 변형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성인에 한해서는 말입니다.

우리는 영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의를 내려 정신보건사회복지사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영성은 인생의 의미나 목적, 희망,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과 연결되어 있는 원천이다”. 분명 영성을 더 학술적이고 자세하게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의 ‘영적 다양성’이라는 책에서 영성을 위와 같이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상황에서 두 가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이 주제에 대해 클라이언트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 시발점을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영성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이해 및 해석을 알아내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거나 나아가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사정을 위한 인터뷰 질문들은 특정 상황에 따라 변형시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종교나 신앙, 영성과 같은 명확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사정을 내리는 간접적 접근 방식도 있고, 그러한 단어들이 클라이언트와 관련이 있을 때에는 그 단어들을 사용하는 직접적 접근 방식도 있습니다.

제시된 질문들에 대한 기타 고찰

질문 1은 현재 가톨릭 신자가 아닌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직원이 있으며, 이들에게 가톨릭이라는 종교를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영성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묻습니다. 영성 사정과 관련하여 제가 드린 영성에 관한 정의가 유용한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리타스의 덕목에 기반하여 영적 민감성을 띤 복지 활동들을 펼치는 것이 가톨릭의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직원 및 클라이언트의 비종교적 관점, 또는 다양한 종교적 관점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질문 2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이 클라이언트와 일하면서 얻는 소진과, 사회복지조직의 위계질서로 인한 소통과 관계 때문에 얻는 소진을 막아주거나 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묻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들(일선 사회복지사 또는 관리자)이 영적 민감성을 기르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 준비를 해야 그들의 소진을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글에서 인용한 자료들 역시 제 의견을 뒷받침 해주며, 질문 4와 5에 대한 대답이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사람들이 일터에서 가령 기도나 명상, 요가, 산행 등을 통해 스스로 에너지를 회복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용한 성찰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을 일터 내에서 찾을 수 있다면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에 관한 내용들은 대부분 제 저서 '영적 다양성'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사회복지기관의 조직문화 자체가 얼마나 영적 민감성을 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 책에도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 및 권고 사항들이 적혀 있습니다.

질문 3번과 6번은 미국의 사회복지 환경에서 영성에 관해 연구를 한 사례들과 종교적 및 비종교적 영성 접근 방법의 예시들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 저서에 나와 있는 예시들과 가톨릭대학교 미국 사회복지학과의 스폰서를 받는 '사회복지에 관한 종교 및 영성 저널'에 실린 글들을 추천 드립니다.

질문 7은 영성과 연관되어 있는 사회복지의 실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카리타스 덕목에 기반하여, 영적 민감성을 띤 사회복지에 대한 접근 방법 안에 담긴 주요 원칙을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

우선 인내를 가지고 저의 제안들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다양한 종교와 비종교적, 영적 관점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귀중한 노력에 제가 동참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